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4.04

꿈을 담아 희망을 나눕니다

ARK of HOPE DONALD  170  

따스한 4월의 봄날에...



설곡산과 포카라에 피어난 봄꽃만큼이나 따스하고, 푸르게 빛나는 강물만큼이나 아름다운 4월을 맞아 후원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달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의 초청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변함없이 도시 빈민촌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한 줌의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쓰레기터 같은 좁은 방 한 칸에서 여덟 식구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잠들어 있던 아이..... 차마 깨울 수 없어 발걸음을 옮겼지만 자카르타를 떠난 지금도 이 아이의 아름다운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8일에는 네팔 포카라 다일공동체가 개원합니다. 포카라는 네팔 최고의 관광 휴양도시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지만, 정작 이곳에서 생활하는 산지 주민들의 생활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학교에 오지 못한 아이에게 “왜 학교에 나오지 못했느냐?”고 물으면 “너무 배가 고파 걸어서 힘이 없어서 학교를 오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하루에 빵 한 개만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다일이 포카라에 생명과 꿈을 나눌 빵퍼를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했던 다일공동체가 8월에 개원할 우간다 다일공동체를 포함하면 9개국 16개 분원에서 밥과 빵과 물과 꿈을 나누는 국제적인 NGO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일공동체의 사역의 크기와 무게가 늘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크기와 무게는 몇 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오늘의 다일은 후원회원 여러분이 그려주신 그림이며, 후원회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건축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다일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다일 후원회원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내가 나누는 사랑의 실천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나눔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일공동체가 생명의 밥퍼! 생명의 빵퍼! 생명의 물퍼! 생명의 꿈퍼! 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토종NGO 다일공동체가 아무런 희망도 꿈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천사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함께 뛰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빈민촌에서 만난 아이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배가 고파 학교에 갈수 없는 네팔 아이에게 빵 한 개를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따스한 4월의 봄날, 여러분들과 손에 손 잡고 따듯한 오솔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끝없는 강물 같은 길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눔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4월에

작은형제 *침* 빛 노 목사 올림



CONTENTS

2014.04

- 02 다일, 다같이 일하는 그날까지!
- 08 사랑의 버스기사님
- 10 필리핀다일유치원 제3기 졸업식
- 16 근데 지금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 좀 미안하네...
- 18 밥퍼는 000이다
- 19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21 다일뉴스
- 28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30 나눔을 실천하는 신규후원자
- 32 후원안내

5월부터 홀수달 격월로 발간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4년 4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번지) 편집위원 · 김도한, 이가영, 최가람
 번역 · 이예형, 조아영 감수 · Byron Chun 사진 · 김도한, 목정수 디자인 · 제이앤제이컴퍼니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The spot of
Global Dail

글·이가영(다일복지재단 직원)
Ga Young Lee
(Dailwelfare Foundation Staff)
joy337@dail.org



다일, 다 같이 일하는 그날까지!

Dail, until the day everyone works together

다일공동체는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인 토종 NGO입니다. 그렇지만 다일공동체는 한국인만을 위한,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NGO는 아닙니다. 다일공동체 직원들 중에는 한국인이 많지만 중국, 베트남,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등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피부색,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일의 일꾼이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다일공동체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는 빵퍼 제빵기술교육사업, 전통공예교육사업, 양계 지원 사업 등으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네팔다일공동체에서도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빵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ail is a Korean traditional NGO which starts by Korean people in Korea. But it is not running for only Korean people and by Korean people. There are various nationalities, which are not only Korean but also Chinese, Vietnamese, American, Cambodian, Filipino, Nepalese and Tanzanian. We all are servants of Dail and God regardless of nationalities.

Dail is now carrying a self-reliant support service into effect for making village people happy. It helps people to be independent by trying to force a business of 'Bbangfor' instruction of bakery skill, instruction of tradition crafts, and support of poultry farming in Cambodia. Dail is running a vocational school and is preparing a Bbangfor business in Nepal.

빵퍼:

제빵기술교육사업



Bbangfor:

A business of instruction of bakery skill

‘빵퍼’는 밥퍼본부에서 거리가 멀어서 밥퍼를 찾지 못하던 캄보디아 수상 빈민촌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다일어린이집에서 자라서 제빵 기술을 배운 리일 선교사가 매일매일 사랑을 담아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빵공장의 마을 청년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훈련장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의 빵공장에서는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이 만들어져 아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교육 실습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마을의 청년 제빵사들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밥퍼에 밥을 먹으러 오던 소녀가 제빵사가 되어 다른 도시에서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일 선교사는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더욱 열심히 제빵 기술을 익히고 지금 네팔 포카라다일공동체의 새로운 빵퍼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포카라에서도 리일선교사처럼 빵을 먹고 꿈을 품는 꼬마 제빵사들이 생기를 소망합니다.

Bbangfor started when poor children who could not reach Babfor Center were given bread in Cambodia. Ryle missionary who learned bakery skill at a Dail nursery in China used to give children bread happily every day. A bakery turned to a technical training field for young men and single mothers. Today, the bakery gives children fresh bread in Cambodia. Many young bakers in town, who passed the practice teaching test, bake bread now. The girl who ate a meal at Baffor got a job at another city as a baker. Ryle missionary got a college education, mastered bakery skill and went to the new Bbangfor field in Pokhara, Nepal. We hope that lots of children have bread and have a dream in there.

싸로앗(왼쪽)과 싸론(오른쪽) 자매가 캄보디아인 자원봉사자(가운데)와 함께 소보로빵을 만들고 있다.

전통공예 교육사업



논과 산, 드넓은 호수가 펼쳐진 캄보디아 씨엠립 시골 마을에는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적습니다.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내에 나가봐도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습니다. 약덕업주를 만나거나 하고 고된 노동에도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모진 환경에서도 “제 아이는 꼭 공부를 시킬 거예요. 저처럼 배움이 없이 살지 않도록 할 거예요.” 하고 다짐하는 마을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그후 이들에게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2012년부터 전통공예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중 생물인 부레옥잠을 건조하여 캄보디아 전통의 매듭 기술을 활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여 캄보디아의 전통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습 교육을 받고자 센터를 찾은 마을 아낙네들이 이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은 꼬아 만드는 공예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슈퍼우먼 엄마,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Many women want to work at Siem Reap where there are rice paddy, mountain and vast lake in Cambodia. There is not enough work when they go to downtown to supply the family income. Thought it often happens to meet a corrupt employer or to receive unjust pay, we meet many positive women. They say “I will endeavor to draw my child to study. I don’t make my child live without learning.” So Dail starts a business of Instruction of tradition crafts in Cambodia for providing fair work in 2012. We support instruction of tradition crafts and distribution structure which dries ‘Eichhornia crassipes’, underwater creature, uses traditional knot skill, makes craftwork, disseminates the skill and sells the craftwork. The women who first got the instruction now found cooperative association, sell craftwork from the heart, and make their child study by their income. They are now super women and stronger supporters in their family.

A business of instruction of tradition crafts

직업기술학교



네팔다일공동체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 네팔 카트만두의 마느하르 강변에는 카스트 제도의 차별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손뜨개 교실, 재봉틀 교실, 네팔어 교실을 운영하여, 그들이 직업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으로 반을 나누어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들 어찌나 열심히 기술을 익히는지 모릅니다.



네팔은 국어로 네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이 50%를 넘습니다. 특히 마느하르 마을에서는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인도에서 이주하여 네팔어를 익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네팔어를 교육하여 문맹률을 높이고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ail manages a vocational technical school for a villager in Nepal.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caste system at Manuharu River in Katumandu, Nepal.

Dail helps people to study working skill by running classrooms of knitting, sewing machine, and Nepali language for jobless people. They eagerly master skill whose educations are divided into a beginner's class and intermediate class.

A vocational technical school

They use Nepali language but the illiteracy rate over fifteen is more than 50 percent. Particularly, in Manuharu town, there are many people who can't attend school for money or don't know Nepali language for emigration from Indonesia. Dail gives a Nepali language education for improving language ability and applies some works there.

양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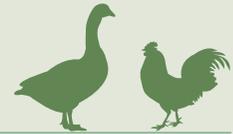
A business of poultry farming



캄보디아 씨엠립의 외곽에는 우기가 되면 땅이 갯벌 같은 진흙탕이 되어 주민들이 도통 오고 가지도 못하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내전 때 매립된 채로 방치되었던 지뢰를 밟고 팔이나 다리를 잃은 지뢰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 쓰룩뿌억 마을입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주민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더욱 더 서로 힘을 합쳐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는 이 마을에 예배당을 짓고 주일마다 마을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장로님이 닭을 잘 키우시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양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귀한 양계 노하우를 나누고, 양계 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가 없는 마을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n outskirts of village where it changes to the mire when it is raining in Siem Reap, Cambodia. There are many victims who lost their limbs for war's mine in Throubbuauk town. The disabled people live together in outskirts because it is hard to find a job. Dail built chapel and visits the town every Sundays there. Since a village elder knew how to raise chickens, he has practiced business of poultry farming. We share his precious knowhow, supply base cost for the business and help jobless people to be a self-reliant.



해외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이들과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글을 읽지도 못하던 시골 마을의 아낙네들이, 가족이 너무 많아서 일찍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청년들이 밥퍼를 책임지는 주방장이 되고 빵퍼 빵공장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오던 아이들이 봉사자가 되어 어린 아이들을 챙기고, 이제는 다일공동체 빵퍼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해외 분원에서 아동 결연, 교육 사업을 통하여 꿈나무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밥 굶는 이가 한명도 안남을 때까지 해외의 자립 지원 프로젝트도 계속됩니다.

다일, 다양성 안에서 일치될! 다 같이 일하는 그날까지!

When we first started the business abroad, we tried to nurture leaders in community. We worked with the poor and disadvantaged among villagers who know about their town very well. The illiterate women or voluntary withdrawal people at school for money became the chefs at 'Baffor' and the personnel at Bbannfor. Children who visited here for eating got to be servant, took care of children, and became the personnel at Bbangfor. Global Dails cultivate men of talent by forming a connection and an educational business. The project which supplies independence abroad is continuing until there is no starving person. **Dail, harmony in variety! Until the day everyone works together!!**

버나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마!

열 살이 넘도록
학교 한 번 가지 못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한 번 힘차게 뛰어 놀아보지도 못한 버나드!

버나드는 sickle cell(씨클 셀) 이라는
유전질환을 가지고 태어 났습니다.

이 병은 적혈구가 변형되어 체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혈액순환 부족으로 심하게 고통 받는
희귀병 이랍니다.

학교, 친구... 우리에게겐 흔한 단어이지만,
버나드에겐 멀게만 느껴집니다.

버나드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후원참여하기

홈페이지: www.dail.org

문의: 02-2212-8004

모금기간: 2014.3.24~4.30



해피빈 참여방법

NAVER

happybean.naver.com로 들어가셔서 → 검색창(다일복지재단)
이라고 적고 클릭 → 맨위 "버나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마" 클릭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사랑의 버스기사님

글·소망교회 변혜순 권사(자원봉사자)

아침부터 서둘러 병원을 들러 급한 걸음으로 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나온 이유는 오늘이 소망교회 봉사 팀에서 밥퍼 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청량리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중에 아침부터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기에
청량리로 밥퍼 봉사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자신도 나중에 봉사를 오겠다며 밥퍼의 위치를 물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이야기를 하며 쌍굴다리 옆 밥퍼를 알려 주었습니다.

- 1 밥퍼나눔본부의 스태프들.
왼쪽부터 김미경 주방장, 백지영 간사, 임정순 전도사, 백선기 간사.
- 2 만원을 들고 있는 재단직원.
- 3 소망교회 자원봉사자팀.



2



3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버스를 내리려 하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건네 옵니다.

“봉사하시러 가시나 봐요?”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기에 갈 수가 없으니 대신 좀 전하여 주시겠어요” 하며

돈 만원을 손에 쥐어 주시는 겁니다.

경황없이 돈을 받아 들고 내리고 나니 이름도 물어 보지 못했네요.

손에 쥐어진 만원 종이 한 장에서 어쩔 이렇게 따스함이 느껴지는지……

사랑을 나누는 곳에 더 큰 사랑이 전하여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의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밥퍼 오늘 봉사하러 가는 길에 더욱더 기쁨이 더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밥퍼입니다.

“필리핀다일유치원 제3기 졸업식”

눈이 별처럼 빛나며 유난히 예쁜 우리 아이들!

글·필리핀다일공동체 _이명현 원장 emhok@dail.org



“The third graduation ceremony of Philippines Dail Kindergarten”

Our graduates have eyes shining like stars!

Philippines Dail Community _ By director. Myeung Hyun Lee



필리핀다일공동체 유치원 아이들 30명이 3기 졸업식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노래와 춤을 발표하고 있다.

필리핀다일공동체 유치원 제 3기 졸업식이 3월 21일에 있었습니다. 눈이 별처럼 빛나는 유난히 예쁜 우리 아이들! 작년 입학식 때만 해도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울며불며 창문에 매달리곤 했던 어린 아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이 땀 흘리며 뿌린 사랑을 매일 매일 먹더니만, 어느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명예로운 졸업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 최초의 졸업식이니 얼마나 명예로우요? ^^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빛나는 졸업장과 졸업메달과 각종 우수상 메달을 수여하는 긴 시간 동안, 요 귀여운 녀석들이 어찌나 긴장하는지 그 모습이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We had the third graduation ceremony of Philippines Dail Kindergarten on 21 March. Our graduates with their eyes shine like stars were so lovely! The little kids were so attached to their parents that they hung on the windows on a last year's entrance ceremony crying that they didn't want to b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But they soon grew up in wisdom and stature by the love of the teachers and now are having honorable graduation ceremony! Isn't it so honorable that it is the for-the-first-time graduation ceremony for them?

Each of the little children was so cute and lovely when they were nervous while we conferment graduation certificate and award medals.



졸업장과 메달을 수여받은 후 추고는 대리와 아이들.

특기할 만한 점은, 2014년 2월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소개한 마들린이 하마터면 문제아가 될 소지가 많았지만 우리 유치원을 통하여 너무도 예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점과, 최근에 아빠를 잃은 크리스토퍼가 좌절하지 않고 결연후원자의 사랑으로 학교에 진학 할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며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큰 보람이었고, 기도와 사랑으로 성원해주신 후원천사님들께 되돌려드리고픈 큰 감사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아래층 밥퍼에서 밥이 지어지는 동안 위층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조회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앙증맞은 노랫소리, 알파벳을 한자 한자 따라 하는 낭랑한 소리, 토끼처럼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꾸러기 아이들을 소리쳐 부르는 선생님들의 애타는 소리... 등등이 울려 퍼졌었지요. 아이들의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는 마치 울창한 숲에서 울려 퍼지는 새소리처럼 예쁘고 청아하기만 하였습니다.

The third graduation ceremony

It was noteworthy that Matlin, who was introduced on an article “Our child is now different from he was in the past!” published on a 2014 February issu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o lovely and normal child through the Dail kindergarten program while Matlin once had lots of issues. We have another case of Christopher, who recently lost his father but was not frustrated, entered a school by loving support of a sponsor. It was such a grateful fruits of the teachers who worked for the children in a hot summer with great effort and we would like to show the fruits to our sponsors who have supported us with love and prayers.

Philippines Dail Kindergarten

At this moment, while meals were cooked on the lower floor, the sound of national anthem sang and sound of alphabet read by children, and sound of teachers calling children who are jumping around like rabbits were echoed on the upper floor. Children’s chatting are so pure and clear that it was like a birds singing in a dense forest.

필리핀다일공동체 이명헌 원장이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졸업식으로 떠나 보내는 게 참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섭섭한 행복? 네.. 다 큰 자식 품에서 떠나 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눈물 나게 섭섭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제 또 다시 제4기 유치원 아이들을 접수합니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지만 양질의 교육과 맛있는 사랑을 듬뿍 먹이는 필다일 유치원의 명성을 듣고 먼 데서도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벗님 여러분, 필다일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실 거죠? 더불어 사랑의 후원 손길도 보내주실 거죠? 새롭게 입학 할 제4기 유치원 40명의 아이들과 1대1 결연을 하여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40명의 결연후원자를 기다립니다.^^

We are having a graduation that it is very sad to be part from these lovely children. However, I call it as a bittersweet parting. Yes.. it is sad when I feel I am like their parents who has to let their grown up kids go but we are happy in some sense :)

We are now ready to go for another term. It is free of charge educating children at the Philippines Dail Kindergarten but it highly qualified education and we care children with love and affection. Many parents have already heard the news and asked us how to have their children entered the kindergarten.

For the Philippines Dail Kindergarten, we are asking your passionate prayers and neighborly love. We are waiting 40 supporters who will sponsor 40 kids who will newly enter the kindergarten. We will be grateful for your love and care in advance!

졸업케이크 앞에서 서로를 축하해 주고 있는 아이들.



필리핀 다일공동체
 후원하기

필리핀 다일공동체

문의

홈페이지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이명현원장
 070-8220-3278, 63-927-560-7346

www.dail.org

해 외 아 동 결 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톤레삽 호숫가 빈민촌에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던
17살 소녀 마까라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일용직 건축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하루 수입
\$3.5에 의존하며 11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로 언제나 7명의 언니, 오빠
그리고 막내 남동생에게 밀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마까라...
그러던 중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기적적으로 이어진 아동결연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악 교육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다일중창단을 통해 음악을 접하고
2010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마까라의 삶에 큰 변화와 꿈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일공동체와 같은 NGO의 단원이 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희망이 없어 늘 어둡기만 하던 마까라는
결연을 통해 새 희망을 찾고
NGO 단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이 아니었다면 꿈꾸지 못했을 희망..
아동결연이 가져다준 기적!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세계의 빈곤아이들이
희망없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 1:1 아동결연 후원자가 되시면?

아동소개카드	결연아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자필편지	결연아동이 후원자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성장보고서 성탄카드	후원신청 후 연 1회 아동성장보고서와 성탄카드를 연말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지	매월 발행되는 다일공동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1:1 아동결연은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이어집니다.
지역의 특성상 아동의 이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안내전화

02) 2212-8004

근데 지금 와서 세례 받는다고 하니 좀 미안하네.....

글·안금영 hna0808@dail.org

유난히도 춥고 을씨년스러운 겨울날 한 OO 님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다일작은천국'에 오셨습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 후 혼자 살았는데 작년 겨울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술로 마음을 달래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너무나 아파 병원에 가서야 폐암 말기에 빠와 취장까지 전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한○○님을 진료하고 있다.



“중학교 때는 교회 오면 이것 저것 뭐 준다고 해서 다녔어~~ 지금 여기 왔으니 받을 수 있지? 왜 없나? 안되나? 나는 평생 주먹과 어깨로 살아 주변사람들이 다들 나를 싫어하면서 피해 다녀. 나는 지금 아무도 없어..... 나 여기에서 죽을 꺼야..... 병원 에 가면 치료 해준다더니 더 아프기만 하고..... 항암 치료 그거 해도 아무 소용없어~ 나는 지금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딸이 있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나야.....내가 찾으먼 가서 죽여 버릴 거야..... 나는 여기에서 죽을 꺼야..... 근데 지금 와서 세례 받는다고 하니 좀 미안하네~~~”

하며 눈웃음을 치며 멋쩍게 웃으십니다.

주치의가 10번도 더 넘게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어도 짐짓 모른 체 합니다.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해 애를 태웁니다. 2차 항암치료 중에도 아들이 보고 싶어 낯골 당에 갔다 와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십니다. 통증으로 온몸이 아파 도움이 없이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해 화장실도 가기 어렵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지독한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몰려 다니는 재미로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며 세례를 빨리 달라고 하십니다.

한OO님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여생을 돕고자 ‘다일작은천국’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일작은천국
 후원하기

다일작은천국

문의

홈페이지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방중근원장
 02-2213-8004 bjjesus@dail.org

www.dail.org

밥퍼는 000이다

밥퍼는 자연휴양림이다

영동교회 김수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쉼 곳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도심 속을 벗어난 쉼터와 같다. 식사를 하시며 유난히 웃으시던 어르신이 생각한다.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숲이 삼림욕하기 더 좋은 숲으로 커가길 기도한다. 숲이 만들어내는 나무처럼 더욱 더 살아 숨 쉬는 숲이 되길 어르신들의 잠시 동안의 깊은 섭이 있으시길 기도하며...

밥퍼는 어머니다

봄온아카데미 김영일

한없이 다양한 모습을 가졌던 어머니,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 느꼈던 어머니의 잔한 뒷모습이 생각한다. 식사를 위해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그 모습이 애잔하여 다시 올 것 같다.

밥퍼는 어둠속의 한줄기 빛과 같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은연화

지치고 힘든 일상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까마득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따뜻한 밥 한 끼는 어둠속의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낙담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같다. 하루지만 그들에게 짧은 시간동안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어 줄 수 있었다는 게 뜻 깊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

밥퍼는 시작이다, 어머니다

태진인터내셔널 김종훈

하루의 시작을 흰 쌀밥과 함께 만들어 주신 어머니, 급식소를 찾으시는 분들의 주름이 제 부모의 것과 같음에 오늘 마음 속 눈물 흘려봅니다. 밥퍼를 통해 제 하루의 시작, 인생의 시작을, 흰 마음(도화지)에 제 이름 담아 봅니다.

밥퍼는 수평저울이다

오금동 웃음꽃 이준환

우리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와 그들을 수평저울에 올린다면 수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 저울을 밥퍼가 수평을 맞춰준다. 우리 쪽으로 기울었기에 밥퍼를 통해 우리들은 봉사하며 그들 쪽으로 맞춰준다. 밥퍼는 수평을 맞춰주는, 크게는 사회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스템 같다. 밥퍼 파이팅!

밥퍼는 생명이다

오금동 웃음꽃 임명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 배워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기쁜 삶이겠다.

밥퍼는 예수님 마음이다

새로운 교회 김서영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진심으로 이 땅의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로 대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행복해 지는 나눔의 활동, 밥퍼 파이팅입니다.

밥퍼는 희망이다

OCAP클레임 연구회 이영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다시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이 잘 먹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그분들께 전한다.

밥퍼는 생존이다

외교부 임보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힘든 사람도 많다. 밥퍼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돼주는 생체이다.

밥퍼는 사랑이다

휴먼레이스 김선화

좋은 분들과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밥퍼는 우물이다

굿뉴스사관학교 노성민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주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주는 우물이다.

밥퍼는 포화상태다

신반포교회 청년부 김성재

마음도 몸도 포화상태가 되는 기분, 졸업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밥퍼'에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엄청 긴 배식 줄을 보고 당황하고 겁도 났지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니 몸도 마음도 배부르고 알찼다. 명품시계보다 밥퍼 팔찌 낀 우리들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건 이 때문일까?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도초도



해맑게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마친 도초도 어린이들과 관계자분들이십니다. 배식 시간 전 보여주셨던 감동되는 공연과 합창은 천상의 하모니처럼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며, 함께하셨던 콩두 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외교부



언제나 두 손 두 발 건어붙이고 밥퍼를 위해 귀한 손길을 건내주시는 외교부 임직원 가족들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나눔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기에 계속 된 봉사과 후원에 너무나 감사드린 하루였습니다. 밥 한 끼에 사랑과 희망을 품어 주시는 외교부가 최고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밥퍼목사이신 최일도목사님을 따라 섬김과 나눔을 배우고자 찾아주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 여러분입니다. 기적이란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그들, 밥퍼는 언제나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배우고 간 장신대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온화한 미소와 사랑으로 찾아주신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팀입니다. 봉사하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함은 물론 이제부터는 매달 정기 봉사를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우리 모두 감동이 넘치는 밥퍼가 되었습니다.

외환은행나눔재단



밥퍼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후원자이신 외환은행나눔재단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주실 때마다 그 환한 미소와 사랑에 밥알 하나하나가 더욱 윤기가 빛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귀한 손길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겠습니까? 밥퍼는 여러분을 항상 기다립니다.

더 레스토랑



나눔과 섬김을 위해 일주일이상을 봉사해주신 더 레스토랑 직원 여러분입니다. 주방의 달인들이 모여서인지 저희가 너무 편해서 죄송스러웠습니다. 숙달된 조교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도 밝은 얼굴로 봉사하는 직원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휴먼레이스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뚝뚝 뚫힌 휴먼레이스입니다. 달리기로 다져진 체력에 지친 모습 하나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더욱 힘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발 한발 도약하듯 희망으로 뛰어가는 밥퍼와 함께 나눔을 실천한 휴먼레이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의 역사뿐 아니라 나눔까지 제공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계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밥퍼의 역사까지 지켜주시려 찾아주신 귀한 손길에 26년간의 이어감이 보람되는 하루였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온 몸으로 보여주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중헌



행복과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인중헌 여러분입니다. 힘든 순간순간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밥을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따뜻한 마음이 열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더욱 밥퍼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들을 때 까지”

밥퍼밴드 1개 5,000원으로

지구촌 빈곤 아동 20명의 한 끼를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밥퍼밴드 1개 5,000원



문의

서울다일교회 02.2243.8004 / 임정순 전도사 010.8862.083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부분부장 이지현 목사 010.4205.5004

www.dail.org

DAIL NEWS

네팔다일공동체

봄~ 봄~ 봄이 왔어요~^^

네팔에도 봄이 왔어요~ 우기 때는 늘 범람해서 사람 다니는 길인지, 물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머스하르 강둑 네팔다일공동체 밥퍼센터 앞 작년부터 몇 일 전까지 길을 정비하고, 여러 후원자 분들의 후원으로 강둑에 모래를 쌓아 조금은 미흡하고 울퉁불퉁하지만, 단단한 도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이 풀린 따뜻한 오후 현지스텝의 주머니에서 다일의 정신인 십시일반으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금한 돈으로 어린 나무를 사고, 꽃을 사서 후원자 분들이 만들어준 강둑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예쁘게 가지런히 심었습니다.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해질 밥퍼센터 앞 머스하르 강둑을 생각하니 행복해집니다. 따뜻한 봄 아름다운 머스하르 강둑 네팔다일공동체 밥퍼로 꽃구경하러 오세요~^^



봄을 맞이하여 묘목을 심고 있는 팀세나 부분부장(오른쪽)과 꿀바도르 총무(왼쪽).

Nepal/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르은이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르은이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르은이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10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열심히 다니며, 예전의 밝은 미소와 장난스러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르은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회복한 르은이(오른쪽)

Cambodia

DAI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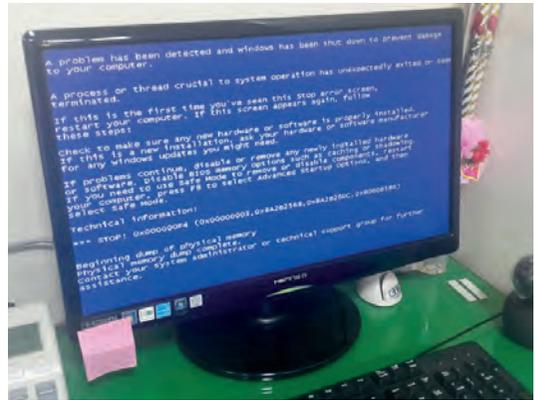
다일작은천국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에 업무용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쓰던 컴퓨터들은 너무 오래되어 진단 결과 성능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70대 노인의 건강상태라고 합니다. 부팅 시에 이상한 소리가 나며 업무 도중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버리는 일이 종종 생겨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다일천사병원 환자들의 접수와 진료 시 컴퓨터가 예러가 생겨 진료시간이 지연되고 진료실 컴퓨터와도 연동이 되지 않아 환자분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후원해 주실 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Little Heaven/

중국다일공동체

상하이 쿤산 한인교회에서 온 선물

멀리 상하이에서 중국 다일어린이집에 선물이 날아왔습니다.

멀리 상하이에서 한번도 와 보신적도 없는 북쪽 최전방 이곳 훈춘까지 쿤산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바자회를 통해 모인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후원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쿤산 한인교회 성도님의 귀한 사랑과 마음을 잘 받았으며 저희 다일어린이집에 너무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감사, 감사드립니다!



China

다일천사병원

다일천사병원에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환자 한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현재 동대문과 을지로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신지 10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다일천사병원에서 기본검사를 하고 협력병원에서 심장초음파를 하니 폐수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분은 폐에 고여있는 많은 물을 뽑아내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이 있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은 오늘도 사랑의 기적에 동참할 천사들을 기다립니다..



Angel Hospital/



DAIL NEWS

베트남다일공동체

여행 동아리인 만리 행 동남아 원정 팀의 학생들과, 호치민의 친척집을 방문한 2명의 개인여행자들이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여행길에 보람을 함께 찾겠다며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파릇파릇한 청년들 덕분에 밥퍼센터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배식과 설거지, 주변정리 등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나 주변의 주민들, 현지 스텝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기원합니다^^



Vietnam/



탄자니아다일공동체

2014년 2월의 아동결연 지원 품을 결연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과 함께 특별히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 예쁜 신발과 인형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신발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대로 된 장난감을 가져본 적이 없이 버려진 타이어를 굴리고 버려진 나무 조각과 플라스틱으로 차를 만들면서 노는 것이 전부인 아이들이 인형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받자마자 인형을 들고 동네를 돌아 다니며 노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귀한 선물을 보내 주신 WHAF 탄자니아 지부장 박상현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Tanzania/



필리핀다일공동체

“재미있는 밥퍼”

그릇 갖고 온 사람 손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아이들이 일제히 그릇을 높이 들고 흔들며 보입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가 자기 얼굴보다 큰 그릇을 가져왔네요
무슨 일이나고요?

아, 글썄, 오늘 밥 짓는 도중에 예고도 없이 수돗물이 끊
겼지 뭐예요.

헉~! 이럴 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밥 준비
는 거의 다 되었던 시점이라 다행이긴 한데 이 많은 아이들
밥 먹은 후 설거지며 청소며 뒷정리는 어찌한다?

그 때, 우리 스텝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그릇 한 개씩 가져오라 하자고 말이죠.
OK! That's good idea!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쏠살같이 달려가서는 제
각각 하나씩 그릇을 들고 왔네요.

귀여운 녀석들! 아이들이 제각각 갖고 온 그릇에 밥을 퍼
주면서 참 소중한 깨달음을 체험했답니다.



만원으로
해외 빈곤아동 40명의
한 끼 식사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영화 한포권
케익 하나
액세서리 한개

만원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달콤함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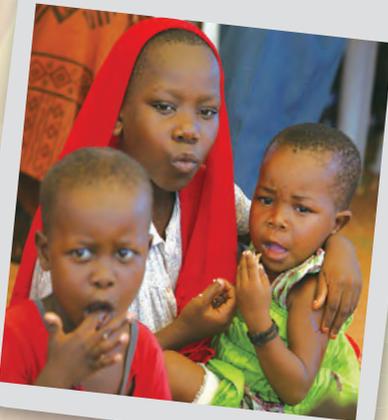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선물하고

희망을 키워주며

살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내 가슴을 치소서

| J. 단 / 沈明鎬 역주, 《누구를 위하여 鐘은 울리나》 민음사, 1975

시제공·Byeol(Elle Choi)

내 가슴을 치소서,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신 하나님이며, 당신은
 여태 두드리고, 숨쉬고, 비추이고, 바로 잡아주려고만 하셨으니,
 나 일어나 서도록,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깨뜨려,
 불고, 태워, 새롭게 되도록 당신의 힘을 기울이소서.
 나는, 다른 자(者)에게 넘겨지려는, 빼앗긴 도읍(都邑)같아서,
 당신을 받아들이며 힘쓰나, 오, 헛일이로소이다.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총독(總督), 이성(理性)이 나를 방해해야 함에도,
 도리어 포로가 되어 연약하거나 참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며 사랑받고 싶사오나,
 나는 당신의 적(敵)과 약혼(約婚)을 하였나이다.
 나를 파혼(破婚)시켜 주옵시고, 그 매듭을 다시 풀거나 끊어주소서,
 나를 당신께 인도하사, 나를 가두어 주소서, 왜냐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나를 겁탈 않으시면, 결코 순결(純潔)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로소이다.

Batter my heart, three-person'd God, for you
 As yet but knock, breathe, shine, and seek to mend;
 That I may rise and stand, o'erthrow me, and bend
 Your force to break, blow, burn, and make me new.
 I, like an usurp'd town to another due,
 Labor to admit you, but oh, to no end;
 Reason, your viceroy in me, me should defend,
 But is captiv'd, and proves weak or untrue.
 Yet dearly I love you, and would be lov'd fain,
 But am betroth'd unto your enemy;
 Divorce me, untie or break that knot again,
 Take me to you, imprison me, for I,
 Except you enthrall me, never shall be free,
 Nor ever chaste, except you ravish me.



평생 ANGEL 회원

다일의 비전을 위해 1구좌 1004만 원을 헌금해 주신 분들

차지훈	0210 오진영	0211 김민철	0212 이욱	0213 김혜자	0214 정인현	0215 김혜영	0216 학천기업부
0218 이정수	0219 백매숙	0220 박혁	0221 윤영상, 최귀재	0222 박은희	0223 김만희	0224 (주)봄은아카데미	
강효숙	0226 외환은행나눔재단	0227 이선영	0228 이승혜	0229 윤길원	0230 윤춘오	0231 마인호	0232 정미자
0234 신수경	0235 유지현	0236 김애자	0237 김서연	0238 김광숙	0239 김보남	0240 황병기	
영재	0242 이순자						
0250 이							

“다일평생천사후원이
되어주세요”

다일평생천사후원이 되어주신
후원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벽돌을
다일천사병원 1층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빈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빈곳들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시고 나눔의 따뜻한
소식들을 주위에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온 맘과 정성 다해
발로 뛰는 다일이 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신규후원자

(주)보신사골드, (주)알엠피, (주)티이티, (주)피에스씨,(주)한국일오삼농원, KIM SANGHOON, 강남순복음교회정종태, 강무순, 강민성 강윤정, 강은희, 고혜영,공항이마트점,광주신세계백화점,구미이마트점 구분각,권병문,권오목, 권채금,길광희,김국환, 김금옥,김기웅,김나래,김남수,김대성,김명자,김민수김민정, 김민정, 김복만,김봉현, 김부수,김상운김서영,김성길,김성수,김성현김수민,김수옥,김순엽,김승연,김연제,김영림,김영주,김영환,김옥미,김용진,김원,김원석,김유림,김유희,김은성,김은주,김인숙, 김인영,김재훈,김정자,김정태,김주현,김지연,김지운,김지현,김채림,김채홍,김태준,김패창,김해곤김현수,김현정,김현정,김호정, 김호준,김홍국,나용기,남기곤,노원세무서,노정자,다일교회청소년부,도기지,도봉점,드림교회남선교회(한경수),드림교회여전도회,류혜승(류지수),마창연,문경희,민윤희,민종석,박경용,박경진,박기인,박도순,박동일,박상미,박선이,박승철강남1호점,박승철강남3호점박승철그래피,박승철본사,박승철세프스노,박승철아카데미,박승철압구정점박영호,박용길,박운선,박은수,박인택,박재우, 박정미,박정순,박정은,박찬일,박혜경,박혜원,박효정,배소연백경희백미옥백민애백선자백송희,범남철변채원생명교회김학란,서광호,서병구,서병욱서보형,서정하,서주형,서지우(서상배),선아가족(김일수),선지현,설악중학교,성완용,성준모,성향자,성현구,성혜원,손기욱,손요한,송경인(최미예),송인화,송정엽산교회(최숙목사),송정은,송중섭,신동우,신세계백화점,신영란,신우열(김혜진), 신익수,신희종,심삼규,안미희,양낙웅,양현아,에이치엠코스메틱,예향어린이서진석,오삼숙,오은정,옥현주,우정현,원주이마트점,유기자,유영자,유은주,유진민,유리나,윤미순,윤상희,윤여원,은혜합창기,의정부신세계백화점,이강열,이경화,이경희,이고운,이고은,이미경,이미자이복희,이성엽,이성일,이수역점,이수현,이승범이승은,이승철,이승현,이영신,이영우,이웅재,이유은,이은영,이은주,이은주,이응희,이정준,이종수,이준찬(이정준)이지은,이지형,이진희,이채은,이혜영,이호영,이희광,인천신세계백화점임재석,임진만,임채홍,임현경,장서연,장선혜,장승희,장윤서(장명규),장현서(장명규)전나희,전병문,전성진,전지영,정기표,정다운,정명화,정미영,정수연,정시로,정연교,정자현정중식,정지연,정해룡,정현진,정희수,조대원,조명순,조미진,조성욱,조수현,조승현,조영림,조원동,조정기,조하나,조현수,조현영,조홍숙,주님의이름으로,진수빈,차상도,참존,채건석,청능교회,최가영,최인,최정우,통학용배파주문산점,하경아,하병철,하석숙,한수성,한승욱,한영아한현영,허건양,현승연,홍은정,황봉학

밥퍼나눔운동본부

2월 11일~3월 10일

후원자 권은령, 김기웅, 김나래, 김민정, 김서영, 김패창, 김현정, 김호준, 남기곤, 백민애, 성혜원, 송인화, 유은주, 이영우, 이철웅, 정수연, 조현영, 채건석, 하석숙

2월 11일~3월 10일

밥퍼나눔운동 02월 후원금 명단 (주)에스지엔지,(주)에이엠지코,광현교회,구미목장교회,국방홍보원,국순애,권혜진, 김선아,김은정,김재하,박종일,백경희 외 무명,서병욱,소망방사팀,수도권산악회,신민숙 양희돈,에버랜드패션,윤형숙,이강, 이강열, 이동원,이영기,이영희, 이일옥,이종욱 이형선,장은하,정신남,조정환,최경근,최자희,홍경화, 홍의숙,황재영

2월 11일~3월 10일

밥퍼 후원물품 드림재단 빵3200개, 무명 김치60kg, 박명순 동치미15kg, 서울우유 주스 3000개, 소망정형 외과 120kg, 윤희미트 돼지고기, 이승심 고춧가루15kg, 이준의 · 이정창 쌀60kg,최우진 라면1박스,캐논 프린터기1개,코르크스 코리아 쌀200kg · 신발45켤레,표미경 수세미 · 행주

베트남다일공동체

후원물품_ \$100의 기적 NAHAL,기업은행(3,155,000동),기업은행(우유150개),다비CJ, LOSCO,닥터 카(300만동),대우인터내셔널(300만동),대장금(1,000만동),롯데리아(420만동),보민건설,사이공한인연합교회(300만동),아리랑화학,아산상선(4,212,000동),총신교회 베트남비전트림,포스코ICT(쌀60kg),포스코SOUTH ASIA,포스코VHPC(23,193,500동),한동이앤씨(2,550,000동),화도광성교회,후원물품.KREVES(술가락300개)

중국다일공동체

후원물품 김성재(Obey & Praise), 권윤경(주 1회 아동 간식), 애심떡집, 이동경(옥수수국수), 이숙의, 천안 신천교회 중고등부, 쿤산한인교회, 림예화, 영광제빵, 훈춘피아노(양말, 수건, 속옷)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경영호, 고미성, 교보생명, 금천구의원, 김보현, 김수현, 김영임(안면도 창기리교회), 김자겸(K-WATER), 남원동북교회 청년부, 녹양교회, 대박(정기후원), 동심회, 동진포장, 류성봉 외 9명, 목포복음교회, 박성현(KAST), 부산창조어머니회, 산마루교회, 상지대학교, 스카우트연맹, 신북초등학교 일사모, 아르떼, 안면도우포회, 영철허저, 울산적십자, 원준연, 윤제용(서울대학교), 이승식(클럽나우), 이희준(중국다일공동체), 인천시아동복지협회, 전상훈(하나투어), 전주노송감리교회, 전주한일고등학교 교직원, (주)신우이앤지, 주은혜 목사, 중부연회연수동지방, 진경희(클럽나우), 최윤정(네팔다일공동체), 카도(정기후원),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포콘스, 한수민, 황채순 목사(임마누엘교회)

필리핀다일공동체

현지후원금 이명현, 해피드림교회

네팔다일공동체

신규후원자 김성재, 꿀바르드따망, 동교동교회, 박종원, 분당드림교회, 애틀란타드림미션, 이리성산교회, 인디고여행학교, 정진영, 조금례, 투어히말라야여행사

다일작은천국

후원금 부영상회,은혜축산, 햇살 가득 어린이집
후원금품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여성옷 100벌, 오미희: 사과한 박스

다일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8
E-mail bom@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E-mail lplhome@dail.org 070-8220-6160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E-mail mookanri@dail.org 070-8220-3940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E-mail emhok@dail.org 070-8220-3278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E-mail babperdail@hanmail.net 070-8201-5833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영성수련

2014년 상반기

1단계

- 155기 4월 21일 ~ 4월 25일
- 156기 5월 12일 ~ 5월 16일
- 157기 6월 23일 ~ 6월 27일
- 미주 16기 5월 26일 ~ 5월 30일



대표 | 최일도 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야(전 월드컵전 구호팀장)



“4박 5일의 시간이 제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 창조의 질서가 보여서 참 신기하고 놀라웠고 사실을 보는 힘, 진실을 아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아. 그 진실이 보이니까 제 자신과 예수님이 보였다. 정말 기쁘네요.”

-류승완(영화감독)

설곡산다일공동체 T : 031)585-2004
www.dail.org H :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날마다
부치는
행복편지와 함께
벗님들과 우정과 사랑과 희망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
·
·

시인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최일도 올림

Facebook
페이지에서 기다립니다!!



최일도 목사의 행복편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oiildolette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더 많은精彩内容 다일공동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org



서울다일교회 홈페이지
s-dail.org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facebook.com/dailcommunity



다일공동체 블로그
dail1004.tistory.com



다일공동체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새소식을 한발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
서울다일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일도 목사님의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